

“80년대 시대의 질곡에 맞섰던 청년들의 모습”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전남대 비나리페의 문예운동’ 펴내

지역 문예운동 전개했던 시 동아리 ‘비나리페’
‘들불야학’ 등 집단창작, 동인집 5권출간 등 조명
김경윤·임동확·이형권·송광룡 등 시인 배출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군부독재 세력이 퍼졌던 시대였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마저 꺾을 수는 없었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의 열정과 목소리는 어둠 속 한줄기 빛처럼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84년 창립된 전남대 국문과 시창작 동아리 ‘비나리페’는 시대의 질곡에 맞섰던 문예운동 산실이었다. 삶으로의 예술 또는 운동으로서의 예술을 주장했던 이들은 민중들 요구에 부응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비나리페라는 문예운동을 통해 구현했다.

사건적 의미의 비나리페는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의 민요양식”으로 규정된다. 삶과 노동, 예술의 일체성을 추구한다는 데 바탕이 놓여 있다.

최근 비나리페의 역사와 의미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정명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호남학과 교수가 펴낸 ‘전남대 비나리페의 문예운동’ (문학들)이 그것. 발간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정 교수는 “로컬 담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지역문학’ 연구의 관점에서조차 이들의 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감히 판단하건대 비나리페는 상당한 족적을 남겼다. 80년대 말까지 일종의 동인시집인 다섯 권의 ‘비나리글마당’을 출간한다. 그러나 80년대 그들의 자취는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듯하다. 앞으로 주류 또는 정통(?) 문학사의 견지에서 이들의 활동이 적절한 평가(재발견)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정 교수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비나리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흑역사 민중문학이나 리얼리즘 사조의 아류 정도로 취급해준다 해도 감격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자신도 한 때 비나리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비나리페 활약이나 지



1980년대 비나리시집.

향점은 보편적인 ‘프레임’을 넘어선다”며 “이들은 창립 이후 공동창작을 시도했던, 당시로서는 꽤 이색적인 족적을 남겼다”고 말했다.

모두 6편의 공동창작시는 문학사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들불야학’ 같은 작품은 오월시동인집에 실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5권의 시집, 한 권의 시선집을 출간할 만큼 창작에도 열정적이었다. 이집대 청춘들은 ‘구원의 노래, 해방의 몸짓’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암울한 80년대를 그렇게 건너온 것이다.

당시 비나리페의 선언문에는 암울한 시대에 맞고자 청년들의 열망과 당돌함이 투영돼 있다.

“우리 전통의 공동체 문화의 민요양식인 비나리페는 개인적 체험이 민중적 체험으로 보편화되어 민족의 삶을 예술로서 표현하고 집적시켜온 우리 고유의 문학전통이며 삶에 대한 의지와 정서가 관념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비는 사람의 의지가 객관화되어 왜곡된 허상 없이 오직 인간의 능력을 스스로 다지기 위해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이며 해방의 몸짓이다.”(‘삶의 터전으로서의 노래와 해방의 메시지’ 중에서)

비나리페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다수는 누구나 알



정명중 교수

역사인식과 아울러 담대한 문예운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대체로 시평의 외연을 하고 있다. 전문적인 시 연구자가 아니기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던 듯하다.

정 교수는 “그들의 작품을 옳게 이해하고 정당하게 파악한 것인지 자신하기 어렵다. 책을 읽다가 터무니 없는 대목들이 눈에 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가 과문하다는 증거”라고 몸을 낮췄다.

책에는 비나리페 결성 과정, 비나리라는 명칭 의미, 민요를 비롯한 전통예술에 대한 비나리페 관심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장시, 연작시, 공동창작시에 대한 부분과 경향성 등도 다뤘다. 그렇다고 저자는 비나리페 작품을 무작정 찬탄만은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예술적 성취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는 필자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을 갖고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반면 필자는 그들에게서 ‘시대의 질곡에 맞섰던 자들의 모습’을 읽어내고 싶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시집 ‘가자 피 묻은 새메들이여’ 출판모임(1984)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에 이영철 교수

내년 열리는 제59회 베네치아비엔날레 국제미술전(내년 4월 23일~11월 27일)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이영철(64) 계원예대 순수예술과 교수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초대 원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예술감독, 부산국제현대미술전 예술감독, 백남준아트센터 초대 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캄파넬라:부풀은 태양’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내년 한국관 전시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베네치아비엔날레는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 ‘사진과 기억’ 온라인 세미나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사진) 기자 초청 ‘사진과 기억’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블록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 ‘4단계 BK21 영어권 문화기억교육연구단’(교육연구단장 김연민 교수·이하 영문과 BK교육연구단)이 마련했으며 20일까지 ‘사진과 증언’ ‘사진과 내러티브’ ‘사진과 문화기억’을 주제로 진행된다.

영문과 BK교육연구단은 이번 블록세미나를 통해 역사적인 기억이 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해체되며 재해석 되는지 탐구한다.

강형원 기자는 언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으며 한국 민주화운동, LA



기회를 제 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의 062-530-066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폭동,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등 역사적인 현장을 취재한 바 있다.

한편 영문과 BK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의 취업 및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토저널리스트의 관점으로 사회를 객관적, 분석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도에 전시 2제



‘나를 봐’

‘열정으로 선을 그리다’

이미숙 초대전, 25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정통적인 도자 공예 뿐 아니라 도자 회화, 도자 조각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여온 도예작가 이미숙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열정으로 선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광주미술협회의 초대로 마련됐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흙이라는 몸을 만져 꿈을 넣어주고, 열정의 가마에 넣어 숨을 쉬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토와 청토를 소재로 작업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단아한 미가 돋보이는 향아리 등 도자 작품부터 한복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옛생각’을 비롯해 ‘웃음’, ‘자태’, ‘들녘’ 등의

작품은 추상성을 가미한 그림이 어우러져 도자기와 회화가 주는 매력을 한번에 느낄 수 있다.

또 컵, 그릇, 접시 등 생활도자가 세트로 이루어진 ‘나를 봐’를 비롯해 현대 과학 기술이 이끌어낸 비약적인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과 함께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에서 도자를 전공한 이 작가는 조각 분야로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4차례 개인전과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광주미술대전 대상, 조선대학교 미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롯이’

‘결’이 전하는 어울림, 따스함

이영순 작가 초대전, 9월 5일까지 주안미술관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찻잔들이 어우러졌다.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촛불이 놓인 도자 등은 인상적이다.

이영순작가 초대 전시회가 오는 9월5일까지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 전시실에서 열린다.

‘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자연의 소재 중 하나인 ‘흙’으로 빚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빚어내고 구워낸 도자기 작품 표면의 ‘결’이 전하는 어우러짐과 따스함의 다른 이름이다.

전시작은 모두 14점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약이 섞이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오묘함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특히 작가는 ‘흙으로 바느질한다는 느낌’을 담아 따뜻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도록 상감토에 황토를 섞어 작품을 만들었다.

전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지난 해 소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남도항도음식박물관 기획초대전 ‘6인6색’전, 한그루 광주·전남 도예가회 20주년 기념전 등에 참여했다. 전남도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용기 공모전 동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